

농어촌공사 영천지사, 농촌협약 사업 본격화...2028년까지 6개 지구 추진

✎ 장병욱 기자 | ⌚ 승인 2026.07.21 15:17



[사진=농어촌공사 영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영천지사가 영천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영천지사는 지난해 고경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내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따라 생활서비스를 확충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현재 대상 지구는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세부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 사업의 완성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영천지사는 현장 조사와 실시설계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과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관계자는 "농촌협약 사업은 지역의 미래 정주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공사 단계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장병욱 기자